

#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4



오 윤 덕 · 재 단 법 인 사 랑 샘 이 사 장 · 법 대 61 학 번

새로운 여정의 시작

|    |                                                                                                                                                                                        |
|----|----------------------------------------------------------------------------------------------------------------------------------------------------------------------------------------|
|    |                                                                                                                                                                                        |
| 1  | 2020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축하<br>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3  | 나눔의 가치<br>오윤덕 · 재단법인 사랑샘 이사장 · 법대 61학번                                                                                                                                                 |
| 4  | 서울법대 사람들<br>남효순, 이우영, 이정수 교수                                                                                                                                                           |
| 7  | 서울법대 사람들<br>제11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우승팀 · 박정현, 양동준, 양선재, 오민지, 이수민, 이종훈 학생<br>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우승팀 · 강우영, 오성원, 전세환 학생<br>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우수상팀 · 이나은, 이서호, 이태희 학생<br>법학전문대학원 · 정규목 학생 |
| 11 | 교정에서 찾는 서울법대의 역사                                                                                                                                                                       |
| 12 | 연구소·센터 소식                                                                                                                                                                              |
| 15 | 릴레이 도서 추천                                                                                                                                                                              |
| 16 | SNU Law 人 캠페인 안내<br>Next Decade 기금(발전기금) 안내                                                                                                                                            |
| C3 |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br>2021. 3. 1 — 2021. 8. 31                                                                                                                                         |
| C4 | 예우 안내                                                                                                                                                                                  |

발행일, 2021년 9월 · 발행인, 한기정 원장 · 편집인, 이동진 학생부원장 ·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삶의 한 여정을 훌륭하게 마친 여러분들에게 우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작년과 올해 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위논문을 완성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 참 잘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서울법대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은 한 여정의 마무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써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늘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여 학위를 받은 것은 그 자체 큰 성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속하여 배우고 익히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배우고 발전하여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거나 독립적인 연구자가 된 뒤 몇 년간 배우지 않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고 일이 익숙해진 뒤에도 쉼 없이 배우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매일 조금 더 배우고 노력하여도 당장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십몇 년이 지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곤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질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꾸준하고 성실한 자세가 인생의 성취에 더 결정적입니다.

둘째, 친구와 동료들 소중히 여기고 함께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 공부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임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학교를 떠나 앞으로 하게 될 일이나 연구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법학은 실천적 학문입니다. 혼자 하는 생각은 위태롭고, 혼자 뜻을 펴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사회적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여러분과 같은 인재를 원하고 그러한 인재가 해주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졸업 후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곤 합니다. 그 모두가 여러분이 더 뛰어나기만 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혜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더 크게 갚기를 바랍니다.예년 같으면 졸업식장과 캠퍼스 곳곳에서 친구와, 동료와, 교수님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기쁨을 함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졸업하더라도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보낸 모교와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생각과 마음을 나눈 동료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학위수여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2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 기 정

사 색 인 으 로  
행 동 하 고

행 동 인 으 로  
사 색 하 라



“6.25 전쟁 참화 당시 어린 나이에 한여름 땀별 밑 한강 변 길바닥에 즐비하게 널부러져 죽은 수많은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시신들을 깔고 있는 쉬파리 떼, 시신으로부터 뿜어내는 악취, 발 디딜 틈 없이 흘러내리는 피고름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끝이 이렇다면 왜 살며 무엇을 하러 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법조계의 봉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오운덕 재단법인 사랑샘 이사장은 봉사의 동기를 묻자 6.25 전쟁의 참화로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는 유년시절 전쟁에서 겪은 실존적 경험에서 인생의 의미를 묻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차피 단 한 번의 인생, 주어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죽어가는 존재들과 나누고 도우며 함께 살아내는 것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당시로써는 매우 낮은 청소년적십자(Junior Red Cross) 운동을 찾아내어 그에 몰입하게 된 것도 전쟁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사색인으로 행동하고, 행동인으로 사색하라”라는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에 빠져들면서 농촌법학회에 가입하여 농촌계몽에 나서는 동시에 휴머니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국휴머니스트회로부터 초대 학생간사로 임명을 받고 한국휴머니스트학술회 창립을 동료들과 주도하는 한편, 법학에서는 인권(Human rights)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때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연거푸 낙방을 하면서 폐결핵을 앓게 되고 수험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이때야 비로소 꿈같이 흘러버린 캠퍼스 라이프가 유년시절 전쟁터에 나뒹굴어 죽어간 생명들이 그토록 살아보고 싶어했을 소중했던 바로 그 ‘내일’이었음을 뒤늦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죽어가는 존재들에 대한 연민을 잊고 있었던 나태를 반성하면서 방바닥을 구르며 눈물의 절규로 간절한 서원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원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시험에 합격이 되고 이어서 판사로 임관이 되면서 법관의 국가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깨닫게도 되고 열심 중에 삶의 자그마한 보람과 행복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무사함에 절로 고개 숙여 감사기도도 드릴 수 있었지요.”

이렇게 20년 세월 안정적인 판사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그는 이것이 진정 어린 시절 결심한 남을 돕는 길인지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고 고백한다. 어린 시절의 실존적 경험과 학창시절의 적십자의 박애정신, 대학 시절의 휴머니스트로서 베르그송의 언명을 끊임없이 고민하던 그는 50대에 들어서면서 돌연 안정적인 판사직을 그만두고 어려운 이웃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변호사로서 불우 이웃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면서 오운덕 이사장이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시험낙방으로 제도권 밖에 버려진 채 혹독한 시련과 고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소위 “고시낭인”이라 불리는 청년들이었다.이들을 위한 부조공헌을 차일 피일 미루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전쟁 중에 죽음을 보고 전을했던 고통과 젊은 날 사법시험에 낙방하고 병고 속에 방황했던 아픔이 오랜 세월을 격세하였음에도 한꺼번에 소환되면서 드디어 망각의 창고 속에 처박혀 빛바래버린 자화상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오운덕 이사장은 더 이상 미루기를 그만두고 준비기간 2년을 거쳐 2003년 신림동 고시촌에 공간 100평 건물을 빌려, 100석의 의자를 들여놓은 강당 1개, 상담실 3개, 차실, 기도·명상실 각 1개를 갖추고, ‘이땅의청년들을 위한열린쉼터 사랑샘’이라고 이름 붙인다. 여기서 뜻을 같이한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려운

여건에 내몰린 제도권 밖 청년들을 모아 교양강연, 심리상담·격려, 다도, 삼선산 성지 일요산행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오운덕 이사장은 이러한 활동 전체를 전액 자비로 충당하며 60대를 사랑샘과 함께 했다. 이 무렵 사법시험 위주의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가 로스쿨제를 토대로 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 양성 제도로 바뀌게 되자 종전의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양산되던 이른바 ‘고시낭인’이 대체로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생겨나던 차에, 공교롭게도 2012년 입차 건물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면서 ‘사랑샘’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보증금 5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오운덕 이사장은 이 돈도 역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한다는 아내의 요청에 따라 고스란히 대한변협에 기부를 했다고 한다. 이 돈이 기본 자산이 되어 사랑샘재단은 2012년 변협 산하에 ‘재단법인 대한변협사랑샘’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이후 재단은 제도권 밖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공익사업은 지속하면서, 아동 청소년, 노인 노숙인, 장애인, 탈북 새터민, 이주 및 난민 등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는 청년공익변호사들을 발굴 지원하고, 청년공익변호사들의 비영리 공익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하며, 준법 봉사에 헌정한 모범을 보이는 청년비영리 공익변호사를 발굴 표창하는 등 그 활동영역을 법조인들에 의한 법률복지 전반으로 확장시켜 왔다. 2015년부터는 법인명을 ‘재단법인 사랑샘’으로 변경하여 변협으로부터 독립하고 변협 시절의 수행해온 법률부조 공익활동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오운덕 이사장은 로스쿨 체제에서도 사법시험 시절과 형태는 다르지만 시험에 낙방하고 제도권 밖으로 전락된 채 실의에 빠져 시험과 학업에 허덕이는 젊은 청년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부조 공익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역설한다.

“올해 ‘사랑샘’은 ‘변호사시험’이 양산해낸 누적합계 1200여 명에 이르는 “오택”의 불운으로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 청년들을 찾아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는 진주를 품은 조개가 상처를 견뎌내고 얻는 결실이듯 뜻을 세운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나 끝내 견디어 이겨내야 하는 각별한 숙명이자 불퇴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도 상기시키고 어떤 역경에서나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향로(向路)를 함께 모색하는 등 남이 가보지 아니한 격려 부조 봉사를 미려하나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대 로스쿨이 전국 25개 로스쿨에 앞장서서 이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지혜를 발휘하여 ‘사랑샘’에도 좋은 영감을 나누어주시기를 모처럼 허락된 이 귀한 인터뷰 지면을 빌어 감히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실존적 경험과 대학 시절 배운 사색인으로서의 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오운덕 변호사는 후배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에서조차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다. “삼라만상에 충만한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자그만 희생이라도 선행시킴 때 너와 내가 함께 의지하고 격려하고 치유 받으며 매 순간 마다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면 높은 장벽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가두지만 재물을 나누면 선한 이웃에 둘러 쌓여 밝은 세상을 함께 사는 자비로 이어집니다. 꽃다발의 향기는 이것을 건네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뜻밖에 먼저 맡게 됨은 섭리이자 신비입니다. 비상을 꿈꾸는 나비는 고치를 틀고 홀로 암흑 속에서 금식하며 혹독한 시련을 인고로 견뎌낸 연후에야 비로소 찬란한 비상을 통해 움직일 수 없는 꽃들에게 꽃가루를 날려 결실에의 희망을 심어주며 우주창조역사에 동참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 주관 있는 연구, 주관 있는 삶



남 효 순 교 수

남효순 교수는 1992년부터 약 30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민법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민법 연구에 매진해왔다. 특히 그는 교수 생활 초기부터 주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독창적인 학설들을 다수 개진하여, 학계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시에 그는 과거에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학설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학설들이 탄생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교직에 대한 열망과 꾸준히 연구하는 것에 적합한 성품을 바탕으로 교수의 길을 선택하였다. 민법 분야에서 독창적이면서 뛰어난 학설들을 다수 연구하였던 그는 예상외로 “노동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에서도 역시 노동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사과정 3학기 재학 중 故 광운직 교수의 “독일법 위주로 연구되고 있는 현재 학계에서 프랑스법이 함께 평형을 이루며 연구되어야만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프랑스 민법을 연구하고자 전공을 바꾸었다.

이후 곧바로 프랑스로 떠나 프랑스 민법을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민법의 매력으로 “법제사적 기초가 튼튼하고 영미법과 대륙법의 모순과 조화를 함께 공부하며 배울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더불어, “오랫동안 민법학자들이 쌓아온 많은 이론을 현시대의 패러다임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과 일상생활에서 민사법이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에 판례가 풍부하고 이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점”도 또 다른 매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1985년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문화적 충격과 함께 선진국과의 격차를 크게 느꼈다. 특히 “선생과 제자,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비교적 경직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격의 없는 농담을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간에 치열한 논리 싸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귀국 후 그는 자신의

제자들과 그런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를 약 30년간의 교수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으로 기억했다.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한불민사법학회 회장으로서 프랑스 민법을 소개하고 논문을 발표하며 출판물을 발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을 큰 보람으로 꼽았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많았던 이전의 프랑스 민법 연구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프랑스 민법 연구를 통해 한국 민법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단기적으로는 2~3년 동안 여전히 법대에서 물권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과학과 인문 분야를 연구해보고 싶다. 궁극적으로 인문, 과학 연구를 통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한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싶고, 더불어 여러 연구들을 정리해서 youtube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이어갈 학생들에게 “판례를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판례 이면의 학설 간 대립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다수설이 내일의 소수설이 될 수 있고, 판례도 매번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유연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리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분은 꼭 다수설과 소수설에 얽매이지 않고 주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1975년,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46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을 서울법대와 함께한 남효순 교수. 그의 새로운 도전들이 새로운 장소에서도 환히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존경을 담은 박수를 보낸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서연 학생기자

퇴임 기념 인터뷰

## 바람직한 법조인의 자세



이 우 영 교 수

이우영 교수는 2003년 12월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전공 분야인 공법학, 입법학, 정당·선거제도론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 석사, 하버드로스쿨 공법 석사 및 스탠퍼드 로스쿨 법학 박사를 마친 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COVID-19로 교수와 소통할 기회가 적었을 원생들에게 귀감이 될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우영 교수에게 인터뷰를 의뢰하였다. 아래는 이우영 교수와 나눈 공법학과 법조인의 진로에 관한 문답이다.

**Q.** 공법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공법학만의 매력은?

법학을 전공하기 전부터 제도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면서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법제화를 통해 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헌법은 철학적 요소와 현실 제도의 요소를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철학과 현실의 요청을 아울러야 한다는 점이 공법학의 어려움인 동시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법학은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 또는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아울러 고민해야 합니다.

**Q.** 공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법 공부라도 사람이 사는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독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 공법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저서를 두루 읽는 것이 공법을 공부할 때 좋은 양분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도를 통해 권리 보장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공법학 연구의 동력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졸업 후 미국에서 긴 시간 공부하며 즐거웠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저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 법제를 더 넓은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미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유학 기간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하면서 많이 배웠고 다양한 음식과 음악,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무척 많은 양의 공부와 근무를 요구하는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이 마침 제 아이들이 태어난 시기와 겹쳐

서 수면시간이 대단히 부족했지만, 돌아보면 모두 감사한 시간입니다.

**Q.** 변호사, 재판연구관, 학자, 교수를 모두 경험하며 느낀 각 직업의 장단점과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요소는?

변호사 일은 기한과 마감에 촉박해서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일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로 팀으로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는 법원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절차와 실제 논증을 판단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로서 학교 수업 시간은 마치 법원의 기일처럼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고, 연구는 더 긴 호흡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조력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업무의 마감 시간, 대심 구도의 긴장감과 팀플레이 선호도, 그리고 의뢰인을 직접 대하는 일에 관한 본인의 적성 등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성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입니다.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끝으로 이우영 교수는 진로를 고민하는 서울법대 재학생들에게 아래 일화를 소개하며 바람직한 법조인의 자세를 제시했다. “유학 시절 지도교수님께서 변호사로서의 첫 출근을 앞둔 제게 해 주신 말씀을 후배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변호사인 나를 어려워할 것 같은 의뢰인을 만난다면, 가장 평범한 정장으로 출근하세요. 의뢰인 이름을 그가 불리기를 회망하는 발음으로 연습하고 회의에 들어가세요. 의뢰인이 변호사의 첫인사를 듣고, ‘이제 나의 힘든 일이 좋아지겠구나,’ 생각한다면, 제 지도교수님께서는 저를 가르친 보람이 있을 거라고 하시며 두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덧붙여 누가 나를 어려워할지 구별할 수 없다면 법조인으로서 앞서 사람으로서의 공부에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실천했고, 학교에서는 수업 전날 이렇게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직이불사광이불요(直而不肆 光而不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 찬 이성, 더운 가슴



이 정 수 교 수

이정수 교수는 2021년 3월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금융규제, 금융거래, 기업재무 등 금융법 분야 전반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 행정고시(42회)와 사법고시(41회)를 모두 합격한 그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16년간 일하면서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정수 교수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바를 다른 사람들이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나누고 싶다.”며 “다소 늦은 나이에 교수로 부임하게 됐지만 시작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겠다.”고 신임교수로 부임한 소감을 밝혔다.

학교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묻자, 이정수 교수는 “학문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연구가 현재의 자리로 자신을 이끌었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부터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을 정도로 연구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는 바쁜 삶의 와중에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파이낸스 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와 금융거래 연구를 이어나갔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수 교수는 학생들이 금융거래 분야에 관한 실무적 소양을 갖추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학기 ‘금융거래법’ 수업을 진행했으며 다음 학기에는 이와 연계하여 ‘기업재무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어 일할 때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싶다.”며 “변호사시험 준비로 바쁜 학생들이 가외의

노력 없이 수업만 충실히 듣고도 금융법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의 계획을 밝혔다. 이정수 교수는 이에 더해 향후에는 금융상품과 금융소송 등을 결합한 교과를 개설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정수 교수의 겸손한 대답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묻어져 나왔다. 교수로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에 대해 “나의 시간을 내가 계획해서 오롯이 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이정수 교수는 이러한 시간을 더 깊은 공부와 연구에 쓰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찬 이성, 더운 가슴’, 이정수 교수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이 말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경제학도에게 필요하다고 한 ‘찬 이성, 더운 가슴’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학생들이 법학 공부에 대한 찬 이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들어 준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르치고 서로 배우며 사제 간에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이정수 교수의 말에서 학생들과 함께 ‘찬 이성, 더운 가슴’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가 그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원 학생기자

신임 교수 인터뷰

## 경연을 통해 깨달은 협업의 가치



박 정 현 · 양 동 준 · 양 선 재 · 오 민 지 · 이 수 민 · 이 중 훈 (가나다순)

2021년 2월 20일 ‘제11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SNU Vis Moot 팀(박정현·양동준·양선재·오민지·이수민·이중훈)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동 팀은 이어서 제18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이하 비스 무트)에 출전, 피신청인측 우수 서면상(Fali Nariman Award for Best Respondent Memoranda – Honorable Mention)까지 수상하였다. 팀의 일원으로서 위 대회에 참가하고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변론상(Best Orator)을 수상한 양선재, 이중훈 학생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

이중훈 비스 무트는 세계 각국의 법학도들이 모여 국제중재 분야에 관한 서면 작성 및 변론 능력을 겨루는 장으로서, 국제사법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서 깊은 대회다.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는 비스 무트의 출제사안을 가지고 개최되는 국내 대회(Pre-Moot)로서, 국제중재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가 2010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각 대회에서 참가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한 뒤, 그 중 하나의 입장을 맡아 변론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SNU Vis Moot 팀이 학교를 대표하여 매년 두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Q.**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양선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른 원우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 교수님, 해외의 학생들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이중훈 학교를 대표해서 비스 무트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 대회에 참

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였다. 실제로 해외 우수 대학의 법학도들과 함께 법리를 다투며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Q.**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양선재 이번 대회에서는 백신의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주된 쟁점으로 다뤄야했다. 생소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찾고 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특히 어려웠다. 팀원들 간에 역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각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장승화 교수님의 ‘국제상사중재’ 수업도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중훈 아직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각종 절차에 관한 쟁점들을 찾고 검토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에 관해 실무에서 활동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였고, 칭화대학 등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친선경기를 치르며 논리를 다듬을 수 있었다.

**Q.**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점은?

양선재 국제중재 경연대회에 참여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을 찾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며 변호사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중훈 이번 대회를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쟁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양건호 학생기자

## 서로의 합으로 빚어낸 결실



전 세 환 · 오 성 원 · 강 우 영

2021년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학생들로 구성된 유스티티아 팀(강우영, 오성원, 전세환)이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차지하였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실제 헌법재판관 앞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으로서 실제 헌법재판과 동일하게 펼쳐지는 경연이다. 올해 총 52개의 팀이 참가한 가운데 부단한 노력으로 최종 우승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과 배운점은 무엇인가?

강 우 영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도 매일 만나서 대회를 준비했던 즐거운 기억들이 많다. 로스쿨 생활에서 서면을 써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직접 서면을 써보는 경험이 특히 의미 있었다.

전 세 환 대회를 준비하면서 즐거운 기억들이 많았다. 로스쿨에 오면 드라마에서 보는 토론을 많이 기대했는데, 실제 변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오 성 원 막판에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원래 헌법에 관심이 많았고 코로나와 관련된 시의적인 주제라서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법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변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Q.**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인지가?

강 우 영 원래 친한 사이여서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점이 비결이다.

전 세 환 세 명이 같은 조라서 서로의 강점을 잘 알았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다.

오 성 원 서로의 합이 가장 중요했다. 모두 친한 사이라서 대회 때도 서로 웃으면서 긴장을 풀어주었고, 떨지 않고 변론할 수 있었다.

**Q.** 대회를 준비하게 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 우 영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대회의 큰 취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 환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부분을 두고 싸우기보다는 법리나 학설을 깊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 성 원 공법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학생기자

## 책상 앞의 법을 넘어, 현실 속 법의 모습을 보았다



이 나 은 · 이 서 호

2021년 2월 5일,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슬기로운Law동생활’ 팀(이나은·이서호·이태희)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후원하는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슬기로운Law동생활’팀의 이나은, 이서호 학생을 만나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회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달라.

이나은 공익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 활동으로 옮기는 것을 지원하는 대회이다. 본선 진출팀은 주제별로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한 달간 기획한 제안서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시간을 가졌다.

이서호 현장 활동가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전해 들으며 제안한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었다.

**Q.**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이서호 법률가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유튜브 등 친근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회가 있다는 소식에 팀원을 모집했다.

이나은 여름방학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공익 인턴십을 했었다. 로스쿨생으로서 어떻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도중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Q.** 준비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나은 변호사가 아닌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특정 법안의 입법을 돕는 등 높은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법률 정보가 꼭 필요하고 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회를 준비하던 도중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을 위한 법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서호 처음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법적 쟁점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자 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교육 대상을 좁히고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제안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 활동가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상담 또한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아 법률 교육과 상담을 안배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일이 끝난 늦은 저녁이 되어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페이스북을 통한 24시간 상담을 제안했다.

**Q.** 수상소감과 남기고 싶은 말은?

이서호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법 이슈를 직접 접할 수 있었고 추상적인 법률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나은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됐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방식 하나하나를 상대방에 맞추어 꼼꼼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공익활동을 함에 있어 법적 지식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완 학생기자

## 비대면 학교 생활을

## 책임진다는 사명감

2021년 1학기, COVID-19의 확산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비대면 학교생활이 네 학기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3대 학생회는 기존의 의견수렴 방식과 행사를 대폭 수정하며 비대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만 했다. 학생회장, 두 명의 부회장을 비롯하여 총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제13대 학생회의 적응기를 담고자 정규록 학생회장과 문답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학생회가 주로 받는 건의는 무엇이고 유형별 대응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COVID-19 이후로 건의 내용이 달라졌나요?

첫째로 시설 보수 건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회가 행정실에 전달하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실에 직접 건의하는 편이 더 빠릅니다. 둘째는 학교생활 중 겪는 불편함에 관한 건의입니다. 이런 건의는 학생회가 먼저 검토하여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고,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원장단 교수님들께 건의합니다. 셋째는 서로 상충하는 건의입니다. 학생회는 여러 이해가 충돌하는 이슈에 관해서는 불간섭을 일차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건의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COVID-19 이후 변화로는, 과거에는 열람실 관련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 원우가 많아 보니 줄었습니다. 대신 강의실 개방 관련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Q. COVID-19로 인한 학사일정 변동 여부, 대면/비대면 전환 여부, 열람실 개방 시간 변동 등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큼니다. 불확실성과 정보 부재 속 학생회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나요?

불확실성과 정보 부재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신속한 정보 전달입니다. 그러나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회가 지금보다 월등히 빠르게 공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원우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기가 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전공필수 과목이라도 이번에 진행한 토론큐서트처럼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비대면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Q. 제13대 학생회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비대면으로 인한 학생 불편 개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학생회의 노력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행사마다 COVID-19 격상 수준에 따른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각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비대면 13기 OT, 새내기 배움터(새터)입니다. 12기는 새터를 가지 못해서 동기들과 친해지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13기들은 비대면



정 규 록 학 생 회 장

방식이라도 새터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원장단 측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새터준비위원회 분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15동 2층과 3층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15동 컴퓨터실과 72동 서암관 컴퓨터실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2학기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하여 재학생-신입생 간 친목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라운지오 뿐만 아니라 교내 다양한 식당 식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에는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e-스포츠대회를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Q. 비대면 전환으로 전통적인 학생회 주최 행사가 다수 취소된 것으로 아는데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그동안 10월에 진행하던 ‘한마음 축제’를 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17동 마당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고기를 구워 먹는 축제인데, 이걸 기억하는 건 이제 11기밖에 없을 것 같아 슬픔입니다. 이외에도 OT/새터 등 항상 대면으로 진행되던 행사들이 다수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회 기획부와 새준위 분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해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대면 비대면 환경을 가리지 않고 유연하게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체육대회는 취소하지 않고 COVID-19에 적합한 방식으로 리뉴얼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체육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 덕입니다.

Q. 끝으로 COVID-19 상황에 임하는 학생회의 각오에 대하여 원우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COVID-19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추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활동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원우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COVID-19로 기존의 학생회 업무가 아닌 처음 시도하는 행사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원우들이 자발적으로 준비위원회에 지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주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재서 학생기자

## 교 정 에서 찾 는 서 울 법 대 의 역 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개학(開學)은 1895년 법관양성소의 개설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근대 법학교육과 그 출발점을 같이 한다. 그로부터 시작된 국립 법학교육기관의 전통은 광복 후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개교로 이어졌으며, 법과대학의 역사는 한국의 굴곡진 근대사를 따라 발전해왔다. 비록 긴 시간을 거치며 많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증축되었지만, 교정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동상과 부조, 현판은 부조리에 맞서 정의를 쫓아온 서울법대의 전통을 되새기게 한다. 그 중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 몇 군데를 소개한다.

### 이 준 열 사 동 상



이준 열사는 법관양성소를 1기로 졸업한 뒤, 안성군수, 법무주사 등의 관직을 거쳐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명되었다. 이후 헌정연구회 부회장을 맡으며 반일 운동에 종사하였고,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현지에서 순국하였다. 서암법학관 앞에 세워져 있는 이준 열사의 동상은 2012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김정환 전 법무부 장관이 1억 원을 쾌척하고 최인수 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이 제작하여 세워진 것으로, 서울대학교 교정에 세워진 최초의 인물 전신 동상이다. 김정환 전 장관은 동상 제막식에서 “이준 열사의 생애는 서울대인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동상 제막을 계기로 열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최 종 길 홀

최종길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쾰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최종길 교수는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자진 출두 하였으나, 조사를 받는 중 고문을 당하여 사망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간첩인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하였지만,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고문 수사 의혹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결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최종길 교수의 죽음이 국가의 고문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3년 10월 17일 고 최종길 교수 30주기 추모식에서 근대법학교육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을 ‘최종길 교수 기념홀’로 헌정하였고, 최종길 교수의 부조를 세웠다. 기념부조에는 다음과 같은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의 글이 새겨져 있다. “달을 보고 해라고 말해야 했던 시대, 그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는 진실 없이는 정의 없고, 정의 없이는 자유 없다는 것을 그의 온 생애를 들어 증거하였다. 오늘, 당신은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 조 영 래 홀

학생들이 치열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는 15동 5층 열람실의 한편에는 조영래 변호사의 사진과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영래 변호사는 경기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한일회담 반대시위에 가담하였고,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소위 ‘서울대생 내란 음모사건’으로 투옥되고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6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조영래 변호사는 1983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설립, 망원동 수재사건,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사건, 연탄공장 진폐증 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 등을 통해 인권변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정의실현 법조인회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설을 주도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90년 9월 초 폐암 진단을 받았고 3개월의 투병생활 후 12월 12일 영면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4년 4월 19일 ‘조영래 기념홀’ 헌정식을 열고 그의 기념물을 열람실에 전시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에도 조영래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홍성우, 윤종현 등의 동문이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며, 홍성우 동문은 축사에서 “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시기에 법학도가 추구해야 할 정의를 몸으로 실천한 조영래 변호사가 후학들에게 가르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한수 동문 감사패 전달

김한수 동문(법대 10회)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하였다. 이에 3월 10일(수) 한기정 원장의 초청으로 김한수 동문, 천경훈 교무부원장, 이동진 학생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김한수 동문은 “어렸을 때 8남매를 키우고 가르치느라 고생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고향에 있는 학교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인연이 있는 기관들에 기부해왔다.”며, 이번 기부금을 모교에서 잘 운용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기정 원장은 “동문님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에 출연해 주신 기금은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수 동문은 중국 하얼빈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중 해방을 맞아 고생 끝에 그해 12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952년 제10회로 서울법대에 입학하였다. 그는 “입학 후 약 2년 동안은 6.25 전란으로 부산에서 학교에 다녔고 이후 서울이 수복되어 약 2년을 연건동에서 다녔다. 법대 유기준, 황산덕, 김중환, 한태연, 신태환 교수님과 철학과 박종홍 교수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는다.”고 당시를 기억했고, 특히 “신태환 교수님은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서준 적도 있다.”고 각별한 인연을 추억했다. 김한수 동문은 서울법대 3학년 재학 중인 1955년 ‘제1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총회’에서 미국 대통령 역으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하여 미국대사관 문정관을 만난 것을 계기로, 1957년부터 1997년까지 41년간 주한미국공보원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예술, 학술 및 교육 교류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근래에는 Fides Vol. 7에 한국과 인연이 깊은 주한미국공보원 문정관 세 사람에 대하여 기록한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대체 행사 ‘설로 다같이’ 열려

2021년 4월 29일과 30일 양 일간,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대체 행사 ‘설로 다같이’가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면 체육대회 대신 개최된 행사로, 비대면 활동과 5인 미만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면 활동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인기게임 ‘포켓몬 GO’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4인 1팀으로 학교 곳곳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액티비티 프로그램 ‘설로 GO’, 이상원·노혁준·전종익·정준혁·공두현 교수가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토크콘서트’, 로스쿨 원우들의 추억을 전시하는 ‘사진전’, 2인 복식 토너먼트로 변제공탁(조원휘, 이내경) 팀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탁구 토너먼트’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실시됐다.

이번 ‘설로 다같이’ 행사를 총괄한 학생회 기획부장 오성원(법학전문대학원 12기)은 “최대한 많은 원우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추진위 위원분들,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원우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좋은 추억이 되었다는 후기를 듣게 되어 뿌듯하다. 이번 축제가 저에게도 오래오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서울법대 동창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창의적인 서울법대인’ 시상

서울법대 동창회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창의적인 서울법대인’을 선정하고 지난 6월 29일(화) 열린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였다. 제29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는 정해주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 이사장(법대 21회), 남승우 풀무원재단 상근고문(법대 28회), 최재형 전 감사원장(법대 33회) 3인이 선정 되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된 제1회 ‘창의적인 서울법대인’으로는 김상헌 우아한형제들 부회장(법대 40회), 강성 카카오펀터프라이즈 CRO 수석부사장(법대 44회) 2인이 선정 되었다.

####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White Tigers On-fire (W.T.O)’팀 우승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2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20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인 장관상은 서울대 로스쿨 White Tigers On-fire(W.T.O) 팀이 수상하였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열린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WTO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상 분쟁 절차를 본뜬 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심사는 학계, 로펌,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맡았다. 올해는 ‘무역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대주제로 마스크 등 공공보건용품에 대한 가상의 수입규제 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심사위원들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국부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이 대회가 통상전문가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모행심심행’팀 장려상 수상

국민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모행심심행’팀이 8월 27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행정심판대회는 그동안 법리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인용’팀과 ‘기각’팀의 공방으로 진행됐다. 13개 로스쿨 25팀 중 8팀만이 참가한 본선은 8월 26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21년 8월 27일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개회사, 학사보고, 졸업식사, 축하, 일반대학원 졸업생 답사, 학위수여, 폐회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기정 원장은 COVID-19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친 졸업생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늘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 친구와 동료 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법대 우창록 동창회장 또한 목표를 세우고 살 것,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 것,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될 것, 열린 마음으로 동료들과 공감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에 나선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법학일반박사 12명, 법학전문박사 1명, 법학일반석사 22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이뤄졌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w리걸클리닉협의회 “2021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공동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와 2020년부터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하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공익인권 분야의 현장에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적 역량을 키우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은 “2021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은 8월 9일(월)부터 8월 20일(금)까지 공익로펌,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과거사, 노동, 이주·민·외국인, 장애, 정보인권, 환경, 시민사회, 국제연대 등 11개 분야의 19개 협력기관이 함께했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55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3일간의 공통프로그램과 6일간의 기관별 실무수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8월 9일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인이 신청한 협력기관에서 공익·인권 분야의 변호사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에는 향후 법률가로서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정의 기법’(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이해완 회장), “한국의 정의론”(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 특강이 진행되었고, 이어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한 각 프로그램 활동 현황 및 소감 발표 시간을 가지면서 성황리에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10기 권태훈 학생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로스쿨생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무엇이 올바른 답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은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에 있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SNU Law 연구자포럼 제1기 수료행사 개최

2021년 8월 20일,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권영준)에서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1기 수료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기정 원장의 축하, 권영준 센터장의 격려사, 정종혁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연구자포럼 연구 성과 개관, 정종구, 박도현 연구자의 학술지 논문 게재 경험, 공두현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향후 일정 안내, 전상현 부센터장의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기 34명의 연구자가 11개월 동안 학술논문 게재를 목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9월 6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제2기 연구자를 모집하였다.

## 연구소·센터 소식

####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중보)는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근), 한국법사학회(회장 정국식), 한국법사회학회(회장 김도현), 한국법철학회(회장 엄순영)와 공동으로 2021년 7월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3호에서 ‘법학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한국 기초법학의 현황’을 주제로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대법원 양형위원장)이 “법조실무와 기초법학”에 대해 기초 강연을 하였으며, 기초법학의 의의와 현황에 대하여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가 “법사를 잇는 법학도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양성숙 교수(경북대)와 오민용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가 “기초법학 교육·연구 현황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김인재 교수(인하대),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협), 박광서 판사(수원고등법원), 나희석 검사(법무연수원), 심우민 교수(경인고대), 장원경 교수(이화여대), 박지윤 교수(이화여대), 정일영 박사(서울시립대 강사), 최호동 변호사(한국법사학회 총무간사)가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 모색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제77회 & 제78회 & 제79회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1년 3월 19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설치·운영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77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가 사회자로 참여한 이 세미나에는 신민수 교수(한양대)가 ‘자가망 논의 배경과 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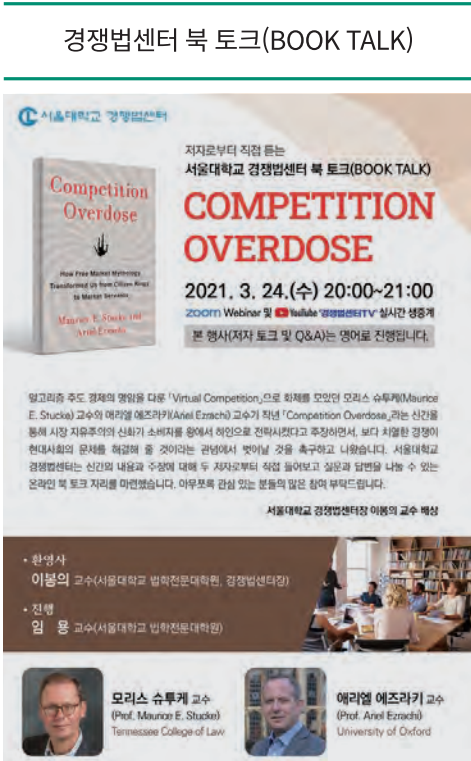
점’, 이상우 박사(법무법인 세종)가 ‘자가망 설치·운영제도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고, 곽정호 교수(호서대), 안정민 교수(한림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이상헌 실장(SK텔레콤), 박철호 상무(KT), 마재욱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서울대학 공익산업법센터는 또한 2021년 5월 7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78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은 주제 발표에서는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 거버넌스’,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 자산의 본질과 그 보호방법의 법적 쟁점’, 김창화 교수(한밭대)가 ‘데이터마케팅과 저작권 면책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고, 이성엽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권영준 교수(서울대), 임성훈 교수(충북대), 강준모 박사(KISDI), 이진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종철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김준일 사무관(특허청)이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또한 2021년 7월 16일 ‘OTT시대의 방송시장 규제와 현안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7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성엽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심상민 교수(성신여대)가 ‘OTT서비스의 범주와 규율 체계,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김태호 강사(서울대)가 ‘OTT서비스 규제의 논리 검토와 법제화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승민 교수(성균관대)가 ‘OTT 서비스에서 사업자 간 규제 형평·실무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김도연 교수(국민대), 권형돈 교수(공주대),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류승곤 변호사(Netflix), 노동환 팀장(WAVVE), 이동정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대호 과장(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공익산업법센터는 2021년 5월 31일, 저널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1호를 발행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1년 3월 24일 “Competition Overdose”의 저자와 함께 하는 북 토크(BOOK TALK)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ZOOM 및 ‘경쟁법센터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서울대 경쟁법센터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전문, 경쟁법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용 교수(서울대 법전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알고리즘 주도 경제의 명암을 다룬 Virtual Competition으로 화제를 모았던 모리스 슈투케(Maurice E. Stucke) 교수와 애리엘 에즈라키(Ariel Ezrachi) 교수가 작년에 출간한 「Competition Overdose」에 대해 두 저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저서와 관련된 주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눔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2021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1년 4월 1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소비자 중심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소비자연맹, 전재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쟁법센터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과 전재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의 특징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신영수 교수(경북대), ‘지능정보시대 소비자중심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전문, 경쟁법센터장)가 좌장으로 참여하였고, 강지원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김재환 국장(인터넷기업협회),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서희석 교수(부산대),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이승민 교수(한국온라인쇼핑협회 유통연구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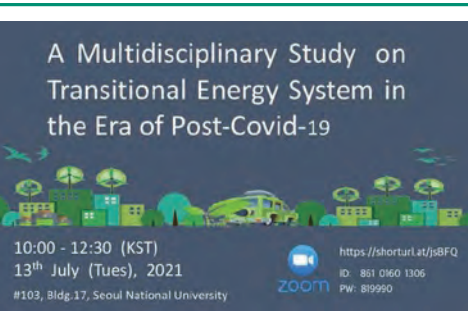


### 2021년도 제3차 법·정책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1년 5월 3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라는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쟁법센터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의 개회사와 최영진 부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1세션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글로벌 규제 동향과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라는 주제로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표시광고 규제’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대), ‘이용자 관점에서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라는 주제로 나종연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가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전문, 경쟁법센터장)가 좌장으로 참여하였고,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직동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종숙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이진규 이사(네이버), 정지연 사무국장(한국소비자연맹),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2021년 7월 13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3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제학술세미나 [A Multidisciplinary Study on Transitional Energy System in the Era of Post-Covid-19]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Joel Eisen 교수(Univ. of Richmond Law

School)가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Biden Administration’, Deng Heifeng 교수(Tsinghua University Law School)가 ‘Carbon Neutral Plan of China’, Richard Wallsgrove 교수(University of Hawaii Law School)가 ‘The Potential of Microgrid in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박시원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Mark B. Glick Specialist(Hawaii Natural Energy Institute)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적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해외 전문가로부터 듣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분석” 웨비나 시리즈 개최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외 전문가로부터 듣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분석’라는 주제로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하였다. 첫 세션에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 및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s Act), 그리고 2021.1.에 통과된 독일의 개정 경쟁제한방지법(GWB)의 내용과 함의에 관해 들어보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이 새로 도입한 플랫폼 경제영역 반독점 지침의 내용과 함의에 관해 들어보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프라이버시 규제와 호주의 뉴스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일본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법의 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네 번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2021년 4월 28일에는 제28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김대근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이유(reason)로서의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법에서 이유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 법

효력의 다양한 이유들, 공적 이유와 공적 이성의 문제를 논하였다. 다음으로 2021년 5월 26일에는 제29회 콜로키움을 열어, 이민열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가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헌법해석”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민열 교수는 의무론과 목적론의 구분을 헌법 해석에 적용하고,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규범 준수 의무는 헌법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2021년 6월 30일 제30회 콜로키움에서는 김만권 교수(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가 “한나 아렌트의 입헌주의 사상에 나타난 폭력과 사회적인 것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만권 교수는 폭력이 혁명의 일부여서는 안 되며 또한 분배의 문제가 핵심 주제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아렌트의 헌정 이론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21일에는 제3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 “회복적 사법 세계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수희 판사는 회복적 사법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전개 추이, 그리고 국내 실천의 확산 양상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논하였다.

## 릴레이 도서 추천



#### Berlin

이 책은 1923~1928년 사이의 베를린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적 격동 속 인간 군상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그린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입니다. 당시의 경치, 거리, 건물 등이 그림 속에 잘 고증되어 있어 당대 분위기를 매우 잘 표현했다는 격찬을 받았습니다. 허구의 인물들과 히틀러, 괴벨스 등의 실존 인물들이 교차하여 등장하여 더욱 생생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원본은 영어본이나, 가능하다면 독일어본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일어본은 노동계급의 말투가 베를린 사투리로 매우 잘 구현이 되어 훨씬 생동감이 있습니다.

Jason Lules | Drawn and Quarterly | 2020

#### 랭스로 돌아가다

이 책의 저자인 디디에 에리봉은 쿼어 이론가로 이름을 떨치며 현재는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옛 고향인 랭스를 생각하며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노동계급 출신인 그가 노동계급의 마초적인 문화에서 게이로 살면서 어떻게 그곳을 벗어나려 애썼는지와 동시에 노동계급에 대한 귀속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급들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점차 극우파로 바뀌어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반자서전, 반이론적,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의 내용은 현재 프랑스 좌파 정치에 대한 진단으로써까지 이어집니다.

디디에 에리봉 | 문학과 지성사 | 2021

### 2021년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공모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을 제정하여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 논문을 공모한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혹은 법학 관련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기초법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을 모집한다. 심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1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상금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논문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된다. 논문 발표회와 시상식도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일반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석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 이민자들

제발트는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여 작가로서의 명성도 영미권에서 더 유명한 작가입니다. 4편의 중단편작으로 구성된 소설로 주인공 ‘나’가 만나게 된 이민자 네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들 독일의 불운한 과거들과 관련되어 있어 결국 영국, 미국, 스위스 등지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담담하면서도 지겹지 않게 끌어가는 개성적인 문체가 특징적인 책입니다. 독일의 아픈 과거를 배경으로 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무거운 문제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그 자체로서 충분히 재미있고 은은하게 마음의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W.G. 제발트 | 창비 | 2019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人を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人を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人を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 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구좌(1만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ecure.donus.org/snulaw  
(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온라인 기부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채널(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로  
연락주시면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화. 02.880.2448

이메일. lawgiving@snu.ac.kr

카카오톡채널. 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 발 전 기 금 )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10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 구분   | 법정기부금      |                                              | 지정기부금                                        |           |
|------|------------|----------------------------------------------|----------------------------------------------|-----------|
|      | 내용         |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단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 공제한도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 소득금액의 100% | 소득금액의 50%                                    | 소득금액의 30%                                    | 소득금액의 10% |
| 해당기관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                                              | 여타 기관                                        |           |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21. 3. 1 — 2021. 8. 31

|           |            |            |                |            |            |                     |               |            |
|-----------|------------|------------|----------------|------------|------------|---------------------|---------------|------------|
| 도선사협회     | 15,000,000 | 2021.03.02 | 최종원            | 650,000    | 2021.04.07 | 김정민                 | 10,000        | 2021.06.07 |
| 청과장학재단    | 10,489,000 | 2021.03.04 | 송백현            | 600,000    | 2021.04.07 | 강윤구                 | 10,000        | 2021.06.07 |
| 김지평       | 10,000,000 | 2021.03.05 | 박광서            | 650,000    | 2021.04.07 | 이종준                 | 10,000        | 2021.06.07 |
| 정병기       | 10,000     | 2021.03.05 | 이베이 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5,000,000  | 2021.04.09 | 윤아현                 | 10,000        | 2021.06.07 |
| 방윤섭       | 100,000    | 2021.03.05 | 박정현            | 10,000     | 2021.04.12 | 석소현                 | 10,000        | 2021.06.07 |
| 이종준       | 10,000     | 2021.03.08 | 김연각            | 10,000     | 2021.04.12 | 이창규                 | 10,000        | 2021.06.07 |
| 윤아현       | 10,000     | 2021.03.08 | 구현정            | 10,000     | 2021.04.12 | 이종화                 | 50,000        | 2021.06.07 |
| 석소현       | 10,000     | 2021.03.08 | 홍성혜            | 10,000     | 2021.04.12 | 유석호                 | 50,000        | 2021.06.07 |
| 이창규       | 10,000     | 2021.03.08 | 김휘재            | 10,000     | 2021.04.12 | 이현선                 | 50,000        | 2021.06.07 |
| 이종화       | 50,000     | 2021.03.08 | 신동일            | 70,000     | 2021.04.12 | 오태욱                 | 100,000       | 2021.06.07 |
| 유석호       | 50,000     | 2021.03.08 | 구글코리아          | 30,000,000 | 2021.04.12 | 신혜주                 | 50,000        | 2021.06.07 |
| 이현선       | 50,000     | 2021.03.08 | 이의영            | 30,000     | 2021.04.13 | 박진호                 | 10,000        | 2021.06.07 |
| 오태욱       | 100,000    | 2021.03.08 | 재단법인나은         | 25,000,000 | 2021.04.14 | 김지수                 | 10,000        | 2021.06.07 |
| 신혜주       | 50,000     | 2021.03.08 | 고학수            | 1,000,000  | 2021.04.16 | 김다연                 | 30,000        | 2021.06.07 |
| 박진호       | 200,000    | 2021.03.08 | 강민구            | 50,000     | 2021.04.21 | 박은정                 | 10,000        | 2021.06.07 |
| 김지수       | 10,000     | 2021.03.08 | 이경준            | 100,000    | 2021.04.21 | 이윤진                 | 10,000        | 2021.06.07 |
| 김다연       | 30,000     | 2021.03.08 | 유홍수            | 100,000    | 2021.04.26 | 박상록                 | 10,000        | 2021.06.07 |
| 박은정       | 10,000     | 2021.03.08 | 육지희            | 10,000     | 2021.04.27 | 고광우                 | 10,000,000    | 2021.06.07 |
| 박상록       | 10,000     | 2021.03.08 | 전일호            | 10,000     | 2021.04.27 | 법무법인(유) 광장          | 5,000,000     | 2021.06.09 |
| 이윤진       | 10,000     | 2021.03.08 | 홍석재            | 50,000     | 2021.04.27 | 이의영                 | 30,000        | 2021.06.10 |
| 법무법인 지평지성 | 2,000,000  | 2021.03.09 | 최지석            | 10,000     | 2021.04.27 | 박정현                 | 10,000        | 2021.06.14 |
| 이재민       | 10,000,000 | 2021.03.10 | 정병기            | 10,000     | 2021.05.03 | 구현정                 | 10,000        | 2021.06.14 |
| 김재환       | 100,000    | 2021.03.11 | 방윤섭            | 100,000    | 2021.05.03 | 홍성혜                 | 10,000        | 2021.06.14 |
| 이의영       | 30,000     | 2021.03.11 | 김은아            | 1,000,000  | 2021.05.04 | 김휘재                 | 10,000        | 2021.06.14 |
| 박정현       | 10,000     | 2021.03.12 | 김정민            | 10,000     | 2021.05.07 | 신동일                 | 70,000        | 2021.06.14 |
| 김연각       | 10,000     | 2021.03.12 | 강윤구            | 10,000     | 2021.05.07 | 지승민                 | 30,000        | 2021.06.14 |
| 구현정       | 10,000     | 2021.03.12 | 이종준            | 10,000     | 2021.05.07 | 강태욱                 | 200,000       | 2021.06.14 |
| 홍성혜       | 10,000     | 2021.03.12 | 윤아현            | 10,000     | 2021.05.07 | 이경준                 | 100,000       | 2021.06.21 |
| 전성훈       | 10,000     | 2021.03.12 | 석소현            | 10,000     | 2021.05.07 | 강민구                 | 50,000        | 2021.06.21 |
| 김휘재       | 10,000     | 2021.03.12 | 이창규            | 10,000     | 2021.05.07 | 재단법인 나은             | 25,000,000    | 2021.06.24 |
| 신동일       | 70,000     | 2021.03.12 | 이종화            | 50,000     | 2021.05.07 | Amazon Web Services | 10,000,000    | 2021.06.25 |
| 한국예탁결제원   | 1,000,000  | 2021.03.18 | 유석호            | 50,000     | 2021.05.07 | 정병기                 | 10,000        | 2021.06.25 |
| 김연장 법률사무소 | 25,000,000 | 2021.03.19 | 이현선            | 50,000     | 2021.05.07 | 방윤섭                 | 100,000       | 2021.06.25 |
| 김연장 법률사무소 | 3,000,000  | 2021.03.22 | 오태욱            | 100,000    | 2021.05.07 | 홍석재                 | 50,000        | 2021.06.25 |
| 강윤구       | 10,000     | 2021.03.23 | 신혜주            | 50,000     | 2021.05.07 | 육지희                 | 10,000        | 2021.06.25 |
| 강민구       | 50,000     | 2021.03.23 | 박진호            | 10,000     | 2021.05.07 | 최지석                 | 10,000        | 2021.06.25 |
| 이경준       | 100,000    | 2021.03.23 | 김지수            | 10,000     | 2021.05.07 | 전일호                 | 10,000        | 2021.06.25 |
| 유홍수       | 100,000    | 2021.03.25 | 김다연            | 30,000     | 2021.05.07 | 유홍수                 | 100,000       | 2021.06.25 |
| 김정민       | 10,000     | 2021.03.26 | 박은정            | 10,000     | 2021.05.07 | 남승우                 | 2,015,000,000 | 2021.06.29 |
| 전일호       | 10,000     | 2021.03.26 | 이윤진            | 10,000     | 2021.05.07 | 법무법인(유) 율촌          | 3,000,000     | 2021.06.30 |
| 최지석       | 10,000     | 2021.03.26 | 이근관            | 10,000,000 | 2021.05.11 | 김정민                 | 10,000        | 2021.07.05 |
| 홍석재       | 50,000     | 2021.03.26 | 박상록            | 10,000     | 2021.05.11 | 강윤구                 | 10,000        | 2021.07.05 |
| 육지희       | 10,000     | 2021.03.26 | 이의영            | 30,000     | 2021.05.11 | 이종준                 | 10,000        | 2021.07.05 |
| 오태현       | 4,000,000  | 2021.03.31 | 박정현            | 10,000     | 2021.05.13 | 윤아현                 | 10,000        | 2021.07.05 |
| 방윤섭       | 100,000    | 2021.04.01 | 김연각            | 10,000     | 2021.05.13 | 석소현                 | 10,000        | 2021.07.05 |
| 정병기       | 10,000     | 2021.04.01 | 구현정            | 10,000     | 2021.05.13 | 이창규                 | 10,000        | 2021.07.05 |
| 청호불교문화원   | 6,649,000  | 2021.04.05 | 홍성혜            | 10,000     | 2021.05.13 | 이종화                 | 50,000        | 2021.07.05 |
| 김정민       | 10,000     | 2021.04.06 | 김휘재            | 10,000     | 2021.05.13 | 유석호                 | 50,000        | 2021.07.05 |
| 강윤구       | 10,000     | 2021.04.06 | 신동일            | 70,000     | 2021.05.13 | 이현선                 | 50,000        | 2021.07.05 |
| 이종준       | 10,000     | 2021.04.06 | 법무법인 케이씨엘      | 1,000,000  | 2021.05.14 | 오태욱                 | 100,000       | 2021.07.05 |
| 윤아현       | 10,000     | 2021.04.06 | 이경준            | 100,000    | 2021.05.20 | 신혜주                 | 50,000        | 2021.07.05 |
| 석소현       | 10,000     | 2021.04.06 | 강민구            | 50,000     | 2021.05.20 | 박진호                 | 10,000        | 2021.07.05 |
| 이창규       | 10,000     | 2021.04.06 | 고학수            | 1,000,000  | 2021.05.24 | 김지수                 | 10,000        | 2021.07.05 |
| 이종화       | 50,000     | 2021.04.06 | 지승민            | 30,000     | 2021.05.25 | 김다연                 | 30,000        | 2021.07.05 |
| 유석호       | 50,000     | 2021.04.06 | 정병기            | 10,000     | 2021.05.25 | 박은정                 | 10,000        | 2021.07.05 |
| 이현선       | 50,000     | 2021.04.06 | 방윤섭            | 100,000    | 2021.05.25 | 박상록                 | 10,000        | 2021.07.05 |
| 오태욱       | 100,000    | 2021.04.06 | 홍석재            | 50,000     | 2021.05.25 | 이윤진                 | 10,000        | 2021.07.05 |
| 신혜주       | 50,000     | 2021.04.06 | 육지희            | 10,000     | 2021.05.25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 10,000,000    | 2021.07.09 |
| 박진호       | 200,000    | 2021.04.06 | 최지석            | 10,000     | 2021.05.25 | 박정현                 | 10,000        | 2021.07.12 |
| 김지수       | 10,000     | 2021.04.06 | 전일호            | 10,000     | 2021.05.25 | 구현정                 | 10,000        | 2021.07.12 |
| 김다연       | 30,000     | 2021.04.06 | 유홍수            | 100,000    | 2021.05.25 | 홍성혜                 | 10,000        | 2021.07.12 |
| 박은정       | 10,000     | 2021.04.06 | 법무법인(유) 현      | 2,000,000  | 2021.05.26 | 김휘재                 | 10,000        | 2021.07.12 |
| 박상록       | 10,000     | 2021.04.06 | 이법재            | 1,000,000  | 2021.05.27 | 신동일                 | 70,000        | 2021.07.12 |
| 이윤진       | 10,000     | 2021.04.06 | 법무법인(유) 율촌     | 6,500,000  | 2021.05.28 | 지승민                 | 30,000        | 2021.07.12 |

|          |             |            |            |           |            |            |            |            |
|----------|-------------|------------|------------|-----------|------------|------------|------------|------------|
| 이의영      | 30,000      | 2021.07.12 | 유석호        | 50,000    | 2021.08.05 | 청호불교문화원    | 6,649,000  | 2021.08.24 |
| 이경준      | 100,000     | 2021.07.20 | 이현선        | 50,000    | 2021.08.05 | (주)한화      | 20,000,000 | 2021.08.24 |
| 강민구      | 50,000      | 2021.07.20 | 신혜주        | 50,000    | 2021.08.05 | 정병기        | 10,000     | 2021.08.25 |
| 네이버 주식회사 | 20,000,000  | 2021.07.21 | 박진호        | 10,000    | 2021.08.05 | 방윤섭        | 100,000    | 2021.08.25 |
| 재단법인나은   | 200,000,000 | 2021.07.23 | 김지수        | 10,000    | 2021.08.05 | 한화시스템(주)   | 20,000,000 | 2021.08.25 |
| 정병기      | 10,000      | 2021.07.26 | 김다연        | 30,000    | 2021.08.05 | 홍석재        | 50,000     | 2021.08.25 |
| 방윤섭      | 100,000     | 2021.07.26 | 박은정        | 10,000    | 2021.08.05 | 육지희        | 10,000     | 2021.08.25 |
| 홍석재      | 50,000      | 2021.07.26 | 박상록        | 10,000    | 2021.08.05 | 최지석        | 10,000     | 2021.08.25 |
| 육지희      | 10,000      | 2021.07.26 | 이윤진        | 10,000    | 2021.08.05 | 전일호        | 10,000     | 2021.08.25 |
| 최지석      | 10,000      | 2021.07.26 | 박정현        | 10,000    | 2021.08.05 | 한화생명보험(주)  | 20,000,000 | 2021.08.25 |
| 전일호      | 10,000      | 2021.07.26 | 구현정        | 10,000    | 2021.08.05 | 한화디펜스(주)   | 20,000,000 | 2021.08.25 |
| 유흥수      | 100,000     | 2021.07.26 | 홍성혜        | 10,000    | 2021.08.05 | 한화에너지(주)   | 20,000,000 | 2021.08.25 |
| ALP 31기  | 50,000,000  | 2021.08.02 | 김휘재        | 10,000    | 2021.08.05 | 한화솔루션(주)   | 20,000,000 | 2021.08.25 |
| 김정민      | 10,000      | 2021.08.05 | 신동일        | 70,000    | 2021.08.05 | 한화솔루션(주)   | 20,000,000 | 2021.08.25 |
| 강윤구      | 10,000      | 2021.08.05 | 지승민        | 30,000    | 2021.08.05 | (주)한화건설    | 20,000,000 | 2021.08.25 |
| 이종준      | 10,000      | 2021.08.05 | 오태욱        | 100,000   | 2021.08.10 | 유흥수        | 100,000    | 2021.08.25 |
| 윤아현      | 10,000      | 2021.08.05 | 이의영        | 30,000    | 2021.08.10 | 청파장학재단     | 13,298,000 | 2021.08.26 |
| 석소현      | 10,000      | 2021.08.05 | 법무법인(유) 화우 | 1,000,000 | 2021.08.17 | 한화손해보험(주)  | 20,000,000 | 2021.08.26 |
| 이창규      | 10,000      | 2021.08.05 | 이경준        | 100,000   | 2021.08.20 | 법무법인(유) 세종 | 1,000,000  | 2021.08.27 |
| 이종화      | 50,000      | 2021.08.05 | 강민구        | 50,000    | 2021.08.20 | 도선사협회      | 15,000,000 | 2021.08.31 |

##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50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1억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1백만 원 |
|------------------|----------------------------------------------------------|-------|-------|------|------|-------|-------|-------|
| 기념품 및 간행물        |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 •    | •     | •     | 감사장   |
|                  |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    | •     | •     | •     |
| 관악 명예 동문<br>특별초청 |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    | -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    | -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    | -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    | •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    | -     | -     | -     |
|                  | 홍상                                                       | •     | -     | -    | -    | -     | -     | -     |
|                  | 부조                                                       | •     | •     | -    | -    | -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    | •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    | •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    |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    | -     | -     | -     |
|                  |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    | •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    | •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    | •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 •    | •     | •     | 기한    |
|                  |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    | •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    |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 평생    | 평생    | 기한   | 기한   | -     | -     | -     |
|                  | 의전서비스                                                    | 평생    | 10년   | 기한   | 기한   | -     | -     | -     |
|                  | 근조기                                                      | •     | •     | •    | •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